

대행 스님

부처님께서는 영원한 오늘에 그대로 지금 계십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그 소리 내가 아마 몇 번 했을 거예요. 지구가 버스라면 버스 안에서 내다보지도 못하고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버스 안에서 옥신각신하면서 '이게 내 의자다, 저것이 내 의자다' 하고 서로 뺏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 버스가 어떻게 시공을 초월해서 도는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찰나찰나 걸림이 없이 돌아가는지 이것을 이 버스 안에서 우리가 상세히 증득한다면, 나를 증득해서 내가 벗어난다면 그런 데서도 모두 속박 안 받고 자유스러울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한다면, 이 모두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도깨비장난 하는 것과 같고 어떻게 보면 즐겁고 어떻게 보면 환희스럽고…. 미생물에서부터 천차만별로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생물들이 모두 암, 수컷이 되어서 자식을 낳고, 그래 놓고도 뭐 사람들처럼 질투를 하고 그러는 게 없이, 수컷이라면 암컷을 많이 두어도 그저 순간순간만 하곤 지나가면서 그냥 착을 두지 않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왜 그렇게 착을 두느냐는 얘기죠. 그까짓 거 찰나에 살다가 찰나에 가고, 한 철 살다가 가고 또 한 철 오고 가고 그저 그러는 거뿐인데 그렇게 야단들이거든요. 요만한 거 가지고도 그냥 불편하게 싸우고 네가 잘못했느니 내가 잘못했느니 하고 싸우고, 또 그런가 하면 그것뿐입니까? 자식이 가출했다가 들어오면 "요놈의 새끼, 깡통을 찰 놈의 새끼!" 그러고선 욕을 하고 말입니다. 여차하면 때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속에서 그 업식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의식이 자기 마음을 통해서 자꾸 나와서 그렇게 만드는 건데 마음에서 고장 난 건 마음으로 고쳐야지 어떻게 때리고 욕을 해서 고칩니까? 그래서 주인공은, 한마음은 둘이 아니니까 벌써 자식과 부모 사이다 이런다면 가설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 주인공에다가 '둘이 아닌데, 저 애가 저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너 아니냐.' 하고 모두 맡긴다면 거기까지 불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통신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이 됨으로써 자기 몸을 자기 마음이 끌어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스스로 그렇게 하기 싫어야 되는 건데, 자기 마음이 자꾸 나가니까 몸도 따라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 그 도리를 여러분이 잘 알아서 행하시면 아주 편안하게 사실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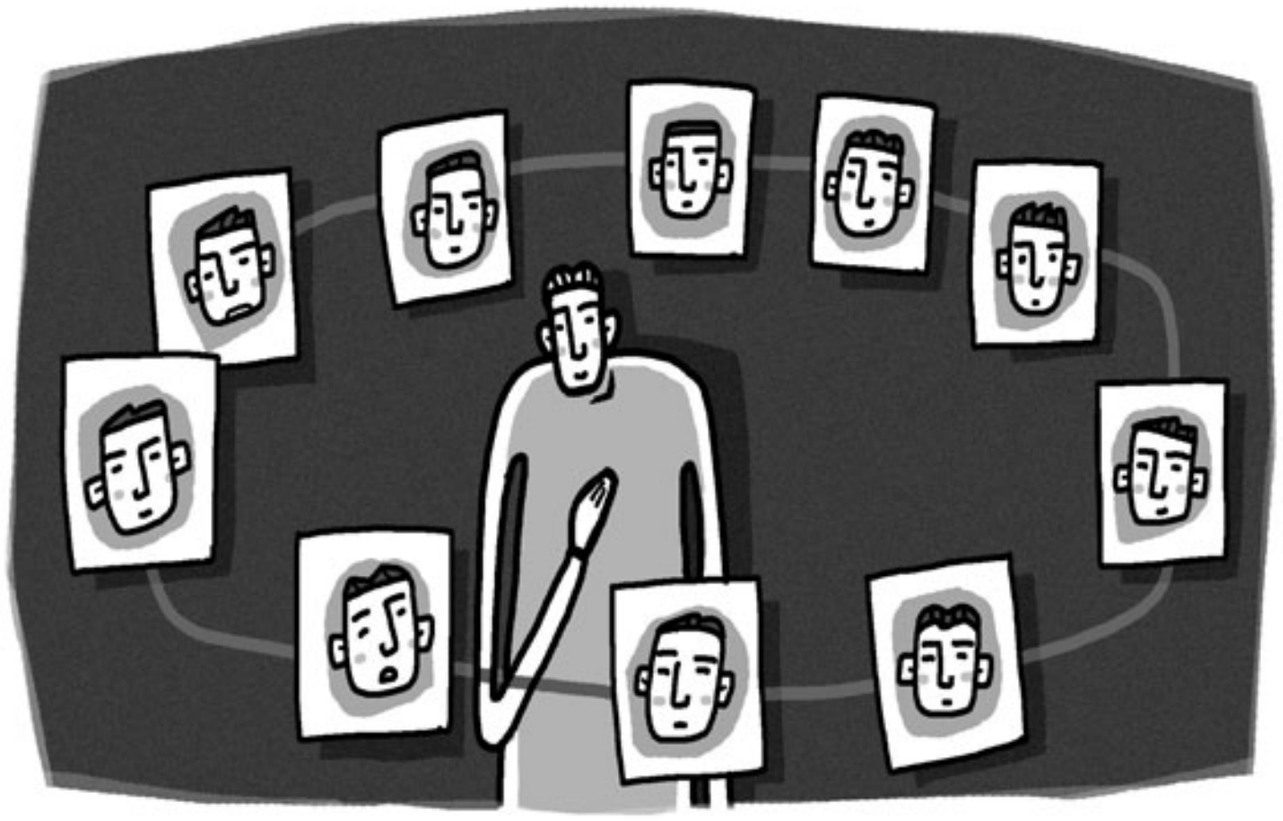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지금 모두 볼 때에, 영계성으로 인해서 바깥에서 영계들이 들어와 집을 차지하고 있게 되면 그게 바로 정신병자가 되는 겁니다. 내 집이라고 들어와서 살거든요. 내 집이 비었으니까, 모르니까, 주장자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아까 얘기한 다섯 가지가 모두 주둔해서 있으니 그것을 여러분은 잘 아셔서, 그저 욕으로 다스리지 말고 부드럽게 대해 주고 거기에 맡기세요. 아무리 나가서 자고 오더라도 "너, 나가서 춥지나 않았니?" 또 더울 땐 "덥지나 않았니? 밥이나 먹었니?" 아, 이렇게 따뜻하게 좀 해 주고 "아이, 시원하게 집에서 먹고 집에서 하지 왜 그랬니?" 하고 이렇게 인의롭고 부드럽게 대해 준다면, 그러고 거기다가 맡긴다면 거기서 그쪽으로 불이, 통신이 갈 수 있죠. 그러나 욕을 하고 말로 한다면 통신은커녕 오히려 마음이 천리만리 달아나가죠.

그러니 부처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데 조심해서 잘 실천해 보십시오. 부부지간도 그렇고 자식지간도 그렇고 모두가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가정에서도 금방 찰나에 "여보!" 하면 남편이 되고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되고 "얘, 아무개야!" 하면 아들이 되고 "여보게!" 하면 사위가 되고 아, 이렇게 하고들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찰나찰나 바뀌면서 살아나가는데 내가 남편이 됐을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아들이 됐을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모두가 공해서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고 나투어 가는 거니까 나라고 고집하지 마시고 모든 걸 한 아름으로 안아서 둥글게 둥굴려 보십시오. 그렇게 넓게 오신통이라는 이 다섯 가지를 모두 둥글려서 굴린다면 그게 바로 통 속에서 벗어나서 만사를 다 부끄럽지 않고 자유스럽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천하 모두를 다 함께 해서 도리천에 이르러 고요한 적멸궁에 든다면 다시금 이 세상에 소임을 맡고 나올 때는 별성으로 화해서 이 세상에 떨어지게 되고, 거기도 별성이 있고 여기도 별성이 항상 자기한테 같이해 주기 때문에 항상 자기 소임을 그대로 잘하고 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분들은 가시는 것도 오시는 것도 없습니다. 오신 것이 없기 때문에 가신 것도 없고, 그냥 과거가 현재고 미래가 현재니까 영원한 오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영원한 오늘에 그대로 지금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자체 깊은 속을 안다면, 부처님의 그 마음 깊은 속도 같이 둘 아니게 알아서 부처님이 계신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질문자1(남) 큰스님! 감사합니다. 반야심경에 보면 '빌 공(空)' 자와 '없을 무(無)' 자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 공에 대해서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불교사전에 보면 '진공묘유 진여실상' 등으로 풀이되어 있습니다. 큰스님께서 풀이하신 "뜻으로 푼 반야심경"에는 '색불이공 공불이색'을 "물질과 마음이 다르지 않고 마음은 모든 물질적 현상과 다르지 않나니" 하여 공을 마음으로 풀이하셨습니다. 그리고 법문집에 "모든 것이 다 공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그 공에다가 다 맡겨라." 하고 자주 거론하셨습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공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공에 빠지면 안 되죠. 빌 공에 빠지면 안 되고요. 우리가 공이라 하면 용무(用無)를 말하죠. 용무!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움죽거린다.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여기가 그대로, 지금 공이라는 자체 그대로입니다. 찰나찰나 나투면서 화해서 돌아가니 그대로 그냥 비었단 얘깁니다. 아까 얘기해 드렸죠? 한 가정으로 친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됐을 때 나라고 하겠느냐, 남편이 됐을 때 나라고 하겠느냐 이랬으니 그거는 어떤 거라고 말할 수 없으면서 그대로 용무가 되죠. 그냥 그대로죠. 그래서 아마 여래라고 이름을 붙여 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대로 여래 속에서 여래의 행동을 하면서, 법이 그냥 그대로 용이면서 무다 이겁니다. 이 모두가 다 그냥 비었습니다. 우리가 '비었습니다' 이래도 빈 줄로만 알지 마시고 '꽉 찼다' 이러더라도 꽉 찬 줄로만 알지 마세요.

전 엊그저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구에 에너지가 다 없어진다면 무엇으로 살 것인가? 그런데 이 허공에 생명들이 꽉 찼느니라." 했습니다. 생명이 꽉 찬 데는 에너지도 꽉 찼단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용무를 그대로 알아서 진실하게 함이 없이 할 줄 안다면 에너지를 얼마든지 끌어 쓸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왜 못한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는 중생이기 때문에 죄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는 왜 못한다고만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이 문제입니다. 생각이요! 해골을 놓고도 그 해골과 자기와 둘이 아닐 때 비로소 자기를 아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묘지가 두 개가 있는데 '너 저기에 묘지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아비 거고 하나는 자식 거니라. 그런데 양쪽에 구멍이 뚫렸느니라. 그런데 아비

☞ A18면으로 계속

www.eunhae-sa.org

팔공산 은해사 창건 1208주년 개산대재

보살계 · 만등불사 · 스마트경북음악회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한 미타도량 은해사는 신라 헌덕왕 원년(서기809년) 혜철국사(惠哲國師)께서 창건하신지 1208주년이 되었습니다.

개산조 혜철국사와 역대조사 스님들의 선맥(禪脈)을 이어온 은해사 대법회에 교계 대덕 큰스님을 모시고 개산대재와 보살계 및 만등불사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두루 동참하시어 무한한 선업과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61(2017)년 10월

개산대재 대법회

· 10월 28일 (토요일 음 9.9)

오전 9시30분 개산조 혜철국사와 역대조사 다례재
11시 개산법요식
오전 12시 중악은빛작은음악회
오후 1시 보살계 수계식
3시 도·시민이 함께하는 스마트경북음악회
6시 만등불사 점등식

· 동 참 금 : 보살계 – 1인 2만원, 만등불사 – 1인 1등 1만원

보 살 계

자비를 실천하기 위하여 지니는 수행덕목인 보살계(菩薩戒)는 불자라면 반드시 받아야 할 중요한 의식이며, 이미 받았더라도 다시 보살계를 받으므로서 다시 한번 자리이타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크나 큰 공덕입니다.

도·시민이 함께하는 스마트경북음악회

· 일시 : 10월 28일 토요일 오후3시
· 출연 : 현숙, 김국환, 조항조, 민요 박애리, 김정교수 외
※ 개산법요식이 끝난후 국악공연과 선화여고 댄스공연도 있습니다.



■ 동대구역 지하도(오전9시)→하양→은해사
남부정류장(오전9시)→경산→하양→은해사
포항역(오전8시30분)→영천→은해사간 차량 운행합니다.

■ 문의 : 종무소 (054)335-3318 원주실 054)335-5220, 은해사 교구 각 말사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951 은해사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 본·말사

자기 나무는 자기 뿌리를 믿어야 푸르르게 살 수 있다!

☞ A17면에서 계속

가 자식한테로 가면 자식으로 하나가 되고, 자식이 아비한테로 가면 아비로 하나가 되니 그건 무슨 연고인가?' 하고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때에 스물 몇 살인데 말입니다. 알 게 뭡니까?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아, 발이 떼어 놓아져야죠. 그래서 삼 일을 그냥 그것 때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하!' 이럭하고선 일어났죠. 생각을 해 보세요. 영에다 영을 넣어도 둘이 아니요, 이쪽 영을 이쪽에다 넣어도 둘이 아니요, 하하하…, 만 불을 하나에다 넣어도 둘이 아니요. 이랬으니 어찌 공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 안 하셨겠습니까? 이 묘한 법을 말입니다.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질문자2(남) 큰스님께 질문을 준비해 오면 법문하시면서 항상 먼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질문할 것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해 왔으니까 여기에 모이신 여러 불자님들을 위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큰스님께서 진리의 법을 모두 설하셨지만 미혹한 저희들이 실천하는 것을 또 잊어버렸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큰스님께서는 불성이, 주인공이라는 나의 근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주 전체를 싸고 있는 근본처라고 항상 저희들에게 간곡히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이 근본처를 알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재가 불자들 가운데 부처님의 형상을 조성해 놓고 남의 사주를 봐 주며, 사찰에서도 부처님의 진리 공부는 뒤로 미루고 세간과 중생들이 즐겨 찾는 각종 행사에만 치중하는 사례가 날로 늘어 가고 있으며 그 수효가 점차 증가하여 대부분의 불자들이 이러한 것이 부처님의 법인 것처럼 알고 생활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재가자나 출가자가 부처님의 진리를 이런 형태로 받아들이는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우리 불자들이 첫째, 금강과 같은 흔들림 없는 공부 방법과 둘째, 이분들을 제도할 때의 주의 사항, 그리고 이분들과 자손들이 받는 과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법을 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하여튼 그냥 간단히 대답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말이 또 조금 붙어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영원히 자기는 자기대로 발견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과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여러 가지의 과보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현실에 있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때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 차원대로 모습을 가지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눈이 떠지질 않고 보질 못하고 듣질 못하니까 그냥 아무거나 짝 짓는 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거나 짝 짓는 데로 들어가서 그 모습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닭이다, 토끼다, 뱀이다, 두꺼비다, 올챙이다 뭐 갖가지 짐승들이 짝을 짓는 데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인지 뭔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그 모습으로 나오게 되면 천 년이 가도 그 모습을 벗고 인도환생을 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항상 우리 스님네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도들한테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한 철 날 때에, 먹고살기 위해서 온통 마음으로 밟아 뭉그러뜨리고 내치고, 기를 쓰고 올라가고 떨어지면서 남의 거를 뺏어먹고 죽이고 살리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나간다면 그 모든 모습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는 거니까, 닭으로도 태어나고 그렇게 된다면 이건 칼산지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산 거를 칼로 턱 턱 쳐서 넣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화탕지옥이다 하면 이건 물에다가 그냥 텀벙텀벙 넣어 가지고 그냥 끓여서 털을 뽑습니다, 모가지 이렇게 해서. 닭뿐이 아니에요. 생선도 그렇고요. 살아서 펄펄 뛰는 걸 그냥 도마에다 놓고 탁 탁 하고 자르니 칼산지옥이 아니고 뭡니까?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소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아무리 음매음매 하소연을 모두가 해도 사람은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하소연을 해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목이 졸려서 죽는다거나 칼로 찔려서 죽는다거나 도끼로 머리를 맞아서 죽는다거나 해도 옴패부득 자기는 그 모습을 타고 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수명이 짧고 길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1년 동안에 몇 번 알을 낳고 몇 번 자기 새끼를 낳고 이렇게 하면서 죽음을 당하는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옥이 따로 있어서 받는 줄 알지 마세요.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지옥, 천당입니다.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아래로 내려간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둘 아니게 생각을 해야죠. 어떤 때는 산 거를 놓고선 칼로 탁 칠 때에 고개를 홱 돌립니다. 너무나 아휴, 보기가 귀찮아서 그래요. 그렇더라도 그 본 것만은 '아! 잘됐구나. 네 모습이 그게 뭐냐. 내 이 물방울 하나로 들어온다면 그냥 찰나에 내가 되는 거고, 찰나에 또 블랙홀에서 별들을 출생시키듯이 그냥 나가니까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나는 못한다, 나는 이만하면 됐지' 이런 생각, 양면을 다 버리십시오. 버리시고 의연하게 그대로 닥치는 대로, 가는 거 잡을 것도 없지만 또 마다할 것도 없고 그냥 닥치면 닥치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아주 여여하게, 즐겁게, 하늘이 딱딱 그냥 비벼져서 곤죽이 돼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그렇게 사세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질문자2(남) 감사합니다.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질문자3(남) 큰스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의 근본은 전지전능한 한마음이라는데 어째서 미생물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윤회에 빠지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자신의 업식에 가려 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는 하지만 애초에 업식이 있기 이전에는 그대로 밝은 한마음 자리였을 텐데, 어떻게 하여 무명에 빠지고 업식이 생기게 되었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 지(地), 수(水), 풍(風) 세 가지가 한데 합쳐져서 그냥 그 암흑을 돌다가 부딪치고, 부딪치니까 화(火)가 일어난 거야. 안 그래? 일어나서 그것들도 다 생명이 돼 버렸어. 생명이 돼 버렸단 말이야.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집을 지어 놓고 자기네들이 그 미생물로 화한 거야. 연방연방 그냥. 그러면 그 미생물로 태어나서 모르면 할 수 없는 거지 어떡해, 응?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리도 터지고 지혜도 생기고 천체를 다 헤아리고 나갈 수 있고 대치할 수 있고 안아 들일 수 있고, 이렇게 지혜가 터져야 자기가 벗어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뱀으로 태어났다 하면 뱀으로 살던 습이 있어 가지고 자기가 살던 데로 놀러 가려고 그러지 자기하고 맞지 않는 데는 가려고 하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허물을 벗지 못하는 거야. 모두가 다 그래. 사람이 법도를 못 지키고 사람답지 못한 데로 빠져나가는 것도 자기가 좋으니까 가는 거야. 잘하라고, 잘 살라고 이렇게 일깨워 주는 데는 싫거든. 그건 싫으니까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으로 안 가고, 만약에 독사나 짐승으로 태어나서 그 모습을 벗지 못하는 이유는 그게 마음의 차원 때문이야.

질문자3(남) 감사합니다. 아직 확실히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큰스님 왜 알질 못해? 내가 대답을 해 줬는데…. 하하하. 너로만 있는 게 아니야. 너로만 있는 게 아니라 너도 나중에 청년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또 할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자꾸 뒤바뀌어 가면서 요다음에 또 어린애가 되고, 여자가 될는지 남자가 될는지 그것도 모르고, 네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오게 돼 있어. 이제 알아듣겠니?

질문자3(남) 스님, 그 과정은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윤회하게 되는 시작의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지.

큰스님 아이고, 시작은 너한테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하하하….

질문자3(남) 그러면 죄송하지만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경우지만, 주인공에게 관한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답을 얻은 경우가 드문 것 같고, 잘 안되는 것도 법, 잘되는 것도 법이라지만 제가 바로 가고 있는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큰스님 바로 가든지 외로 가든지 뭐, 아래로 내려가든지 무조건 네놈이 하는 거니까 네놈한테다 놔 버려. '너만이 일체를 다, 잘못하는 것도 너니까 잘하게 하는 것도 너 아니냐, 이놈아!' 이렇게 해 버려, 그냥.

나는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승가대학 기금 마련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죠? 둘이 아니라고요. 영원히 둘이 아니라고요. 스님네들이 따로 있고 여러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부모형제 다 버리고 스님이라는 소임을 맡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왔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노력하고 모두 응신이 돼 주시는 그 스님네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배출돼야 여러분께서 아마 다 승천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두번째는 여러분이 하신 거는,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갔을 때에 만약에 비싼 물건을 사려면 돈을 많이 가져가야 하고, 싼 물건을 사려면 돈을 조금 가져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안 형편껏 어떠한 문제가 닥쳤는지, 큰 건지 작은 건지 그거를 생각하셔서 큰 거라면 크게 놓으시고 작은 거라면 작게 놓으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갔을 때도, 내가 돈을 주고 내 물건을 사 왔으니 돈을 준 사이도 없고 그쪽에서 물건을 준 사이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 스님네들이 "나는 너한테 받은 사이도 없고 내가 너 준 사이도 없느니라. 그러나 부처님한테서는 너에게 그런 공덕이 갈 수 있고 선물이 갈 수 있고 복덕을 이룰 수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승가대학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스님네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는 자기네들을 위해서 하신다면, 그 대가는 거짓말 없이 꼭 갈 겁니다, 내놓은 대로. 일억이 걷히든지 몇 천이 걷히든지 여러분이 내놓으면 내놓는 대로 그 대가는 거짓 없이 증명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거짓이 없거든요. 아주 보증 수표거든요. 하하하…. 그러니 모두 동참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다고 건방지다고 하지 마시고요. 조그만큼 도와주신다 해도 여러분의 그 애로는 풀리실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의 마음이 이 세상 일체 만물과도 다 가설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체 모든 우주의 별성들하고도 모두 직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짓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요다음에 한번 그 자리에 가서 혼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럿이 뭉치면 이루어 내고 흩어지면 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어느 사람도, 기독교인, 가톨릭교인이라 할지라도 한 불교 안에, 한 지구 안에서 지구를 몸뚱이 삼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지구를 우리는 마음으로 벗어나서, 지구가 나중에 팽창되거나 타 버리는 일이 없이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지구라는 우리 집이 뚫어진 게 있으면 에너지를 다 갖다가 고치고 해서 쓸 수 있게끔 우리는 마음을 한마음으로 내서 해결합시다.

그러고도 스님네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각자 여러분을 위해서 동참하신다면 아마 자손들 대까지도 세세생생 나갈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이제 내려가도 됩니까?

(앞쪽에 앉아 있는 학생들을 보시며) 감사해요. 정말 어린 싹들이 앞으로 자기 나무는 자기 뿌리를 믿어야 푸르르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주 증명해야 돼요. 알았죠?

학생 일동 네.

큰스님 (합장하시며) 예.

여러분의 마음 자체 깊은 속을 안다면,
부처님의 그 마음 깊은 속도 같이 둘 아니게 알아서
부처님이 계신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위 법문은 1995년 10월 8일 부산대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승려연수

진화의 원동력인 자기 불성을 믿어라
불교 가치를 담은 인성교육
한나무인성교육 '꽃을 피우는 나무'

■일 정 : 2017년 11월 9일(목) ~ 11일(토), 2박 3일(숙박형)
■장 소 : 한국문화연수원(충남 공주 소재)
■정 원 : 30명
■교 육 비 : 20만원, (재)한마음선원과학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마 감 : 2017년 11월 2일(목)
■문의/신청 : 031-470-3196, 3200 (매주 화~토요일, 오전10시~오후5시)



부산열린불교아카데미 제 5기 개강

원순스님의 〈육조단경六祖壇經〉

경전어록 전문 강설도량인 부산열린불교아카데미에서는
2017년 가을을 맞아 육조단경 돈황본 강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경전어록에 관심 있는 불자님들께서는
수희 동참하시어 경전의 바다를 유영하는 값진 기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법사 | 원순스님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출가, 해인사 · 송광사 · 봉암사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 조계종 교재편찬위원 역임, 현재 송광사 인월암에서 안거중

개강일시 2017년 11월 6일 월요일 저녁 7시 묘광선원-부산불교실업인회 법당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강의기간 2017년 11월 6일 ~ 2018년 2월 26일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수 강 료 월 5만원 (교재비 별도)
문 의 부산열린불교아카데미 051.244.0263 / 010.3564.3725 / www.open-buddhism.com

※ 주차는 건너편 성원주차빌딩에 유료주차 하실 수 있습니다.